

연중 제3주일

제1독서 : 이사 8, 23b-9, 3

제2독서 : 1고린 4, 10-13, 17

복 음 : 마태 4, 12-23

순정이

“예수께서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마태 4, 23).

강론

“쇄신과 회개의 삶”

김태운 신부 / 요촌 천주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는 ‘쇄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쉽게 표현하여 ‘새롭게 변화됨’을 뜻하는 이 말과 함께 교회는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면, 사제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신자들은 미사참여만을 했는데, 공의회 후에는 우리말로 미사를 하는데 사제들과 신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미사를 함께 봉헌한다는 의미로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신자들이 전례나 교회의 많은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같이 교회 내적·외적인 많은 변화를 겪다보니 보수적 생각을 가진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적잖은 갈등도 겪었다.

어쨌든 바티칸 공의회는 창문을 굳게 닫았던 교회가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교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게 된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래아에서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고 복음을 전하신다.

지금까지 자기 삶에 안주해온 이들에게 회개 즉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하느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 그래야만 하느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타성이 어디 그리 쉽게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본래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하고픈 욕망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도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은가?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아도 하느님과과의 관계만 좋으면 그만 아닌가! 나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아직도 30여년의 군사문화에 향수를 느끼는 이들도 꽤 많지 않은가? 색깔론과 지역감정이라는 망국적 허상에 아직도 올바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찬 쇄신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나아가자.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마태 4, 17).

소리

“동서부터 하나되는”

어제가 설날이다. 우리는 설날이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며 차례를 지내고, 살아 계신 어른들께는 세배를 올린다. 세배를 할 때에는 서로 ‘잘되기를 비는 말’인 덕담(德談)을 주고받는다.

올해의 덕담으로는 무슨 말이 좋을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찢어진 역사의 운명을 어찌지 못하는 우리네 처지라서 더욱 망설여진다. 올해부터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산하라고 훈수할 것인가? 아니면 얻고자 하는 것을 꼭 얻으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비겁하고도 교활한 언사를 무책임하게 내뱉을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만은 그럴 수가 없다. 아니 그래서는 안된다. 한번 사귄 친구를,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억지소리로 모함해서는 안된다고 일러야 한다. 나에게 큰 손해가 돌아올지라도 친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거짓말이나 비방은 남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로, 이는 계명(제8계명)이 금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뭐길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기면 누가 박수를 보낼 것인가? 아마 같은 패거리들끼리나 짝짝거리며 박수를 칠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은 후삼국시대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은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이다. 그러니 우선 동서부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甲]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20

“햇불이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창세15, 17)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고비를 이루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소명(召命)을 받음, 하나님께서 그와 체결하신 계약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음이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에 대해 살펴보자.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여러 해를 두고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했다.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은 긴 세월을 걸친 끈기와 인내라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아브라함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자 하나님은 이제 새로이 개입하신다. 말하자면 당신의 언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무를 지시게 되는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무상(無償)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상물로 하는 계약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계약에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 신앙고백을 한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가룩하게 여기셨다”(창세 15, 6). 2천년이 지난 후에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인 구세사의 경륜에 있어서 창세 15,6이 갖는 근본 의의를 다시 밝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양식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음을 강조한다. 즉 구원을 베푸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도권이요, 인간은 신앙의 행위로서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전에 의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놓이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가룩하게 여기셨다.

또한 성서에 ‘믿는다’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곳이 창세 15,6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리라는 믿음이다.

계약은 당대의 의식을 그대로 따른다. 짐승들을 제물로



희생제를 지내는 모습

잡아 제사를 드리고, 신비경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의 현존을 뵈는 것이다. 그리고 야훼는 활활 타는 햇불을 상징하고 그 햇불은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간다. 당시의 계약 양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 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다.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쪼갠 짐승 같은 운명이 닥치리라는 표시였다.

그런데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계약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활활 타는 햇불만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내리신 만큼 하나님만 계약 이행의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다. 즉 그 의무가 일방적이고 무상적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무에 충실하실 것이고, 상대방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인간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성실을 말소시키지 못한다. 이제 인간은 계약을 위반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자신의 불성실만 인정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비를 하소연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신뢰심을 북돋우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사랑이나.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 돌**

이재호(베드로)
구정삼(세실리아)
관동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축! 개소
서울우유
전주 서신보급소

손인호(프란치스코)
서미숙(안나)
전주시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
☎ 71-0987

등유·경유 정확 신속 배달
장춘주유소

장춘식(마리오)
김경자(데레사)
☎ 291-3344

노령기회

신용조합 행사용품, 각종 단체 행사 기념품, 각종 개인 답례품 및 판촉물 김배근(스테파노)
월드컵 사거리 ↔ 다가동 파출소
☎ (0652) 82-6224
FAX (0652) 85-6224

5분 교리 ㉓

“양 심”

길에 나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길의 방향을 확인한다. 길에 있는 수많은 안내판과 표지판을 읽어야 하고 또 위험한 차길에서는 더욱 유의하여 신호등을 살펴야 한다.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회의 가르침이 길의 표지판이고 안내판이라 한다면 도덕성과 윤리적 선악을 판가름해주는 신호등은 인간 각자의 내면 안에 있다. 더욱 유의하여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잘 보이게 등을 하나씩 달아주셨다고 보면 된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가 달리거나, 길을 건너면 당장 큰 사건이 터진다. 마음의 신호등을 무시했을 때도 역시 큰일이 저절로 터진다. 불안, 초조,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린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전당포의 노파와 같은 사회에 무의한 존재는 죽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그 노파를 살해하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불안, 공포가 엄습해온다. 더 이상 숨어서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상징하는) 천사 같은 여성 소냐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땀땀하게 형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양심수’들이 많다.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여 악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갇힌 이들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 조직적인 불의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그 안에서는 양심을 따르는 것이 반동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고 불행이다. 하루빨리 양심수가 풀려나고, 양심수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빌면서 사목현장의 말씀을 기억하자. “인간은 양심 속 깊은데서 법을 발견한다. ...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행하며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른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사목 16).

* 참고 자료 : 사계절의 사나이 (VHS 120분) · 철학의 위안(책)

교 구 소 식

1. 교구 법원 : 1월25일(월) 오후4시 교구청.
2. 사목교서 연수 : 1월31일 오전10시 전동 성당, 대상-군옥·이리·익산지구.
3. 전주 10차 선택 : 1월29일-31일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회비-40,000원, 문의 및 접수-교육국.
4. 여성 40차 꾸르실료 : 1월28일(목) 천호 피정의 집.
5.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교구 총회 : 1월30일(토) 오후2시 교구청 별관 1층.
6. 혼인강좌 : 1월31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 **성소모임** 인보성체수도회 : 1월31일 오후1시30분 본원(0652)84-3231.
동정성모회 : 수시로 성소 상담, 문의(0652)222-5269.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세탁은 밤11시 이후에

빨래를 할 때는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고 전기 수요량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비교적 전력수요가 적을 때인 밤11시 이후에 하도록 합니다.

주노 레스토랑

경양식 · 피자 · 각종 음료
박 근 표(미카엘)
삼화약국 사거리
☎ 84-7522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웅변종합학원 253-1411
효자웅변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 병 철(베드로)
원감 박 경 애(안젤라)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 광 원 (마르코)
김 소 피 아
전주시 완산구 고시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요심이 (1016) 김병오



감사의 말씀

지난 1월12일 저희 모친(김광일·마리아)상에 찾아주시어 기도 해주시고 위로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족대표 황인규 신부

여사무원 모집

- 자격 : 고졸 이상, 영세3년이상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영세증명서 각1통
- 제출마감 : 1월31일까지
- 연락처 : 86-5022
인후동 천주교회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 여성.
• 일시 : 1월31일 오후2시
• 장소 : 삼량진 본원
• 문의 : (0527)52-4241

MC² 엠·씨 스퀘어

액정비전 · OHP · 스크린
어학학습기(닥터위콤) · 휴대폰
김 인 수(요셉)
한진고속 옆 기린상가 내
☎ 251-1873~4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주일헌금 및 교무금납부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유아세례: 30일 후3시 사무실에 신청.
2. 김글라리수녀님 피정: 26일~2월4일(많은 기도바람)
3. 모임: ①제대회(26일 어머니미사 후)
②빈첸시오(28일 전10시30분)
4. 다음주는 사회복지주일입니다(2차 헌금 있음)
5. 금주침소: 남노4, 5반
차주침소: 중노1, 2반.

1. 전동 성서교실(삼목 성서연구모임): 매주 수요일 후8시 사제관 2층 회합실.
2. 제단체 변동(일원, 특기사항) 사무실에 기재바람.
3. 명화상영: 매주 수요일 후7시30분 강당.
4. 클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대상-본당 청년. 연습-매주 화요일(후8시), 일요일(후6시)
5. 차주: ①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있음.
②차량축성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6. 93년도 교무금 미신입자 신일바람.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1. 초 봉헌: 2월2일(제대용, 가정용) 수녀님께 신청바람.
2. 병자봉성체: 29일,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3. 유아세례: 30일 오후6시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4. 사회복지주일 2차헌금: 31일.
5. 제대회: 28일 오전10시30분.
금주전례: 정송훈, 독서-라경섭씨 부부.
 봉헌-안철조씨 부부.
차주전례: 최옥남,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지혜룡씨 부부

※ 송영진부제 사제서품을 위해 피정중 기도바랍니다.

1. 구역미사 일정안내: 26일-18구역2반 전10시30분. 1구역1반 후3시. 17구역1반 저녁8시. 27일-1구역2반, 3반 후3시, 28일-19구역1반 전10시30분. 1구역4반 후3시. 17구역2반 저녁8시. 29일-19구역2반 전10시30분. 2구역3반 후3시. 2구역1반 저녁8시. 각 구역 반회장님께서는 본당 소식란을 잘 참고 하시기 미리 사무실에 미사장소를 알려주십시오.
2. 예비자 입교식: 27일 저녁7시30분 인도자는 동반해 주세요.
3. 꾸르실료 김습희: 여성40차 28일 관속자. 주경순, 박행영.
4. 다음주는 사회복지주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2차 헌금.
5. 가정방문 감사예물: 3,474,000원. 건축헌금으로 봉헌.
6. 울드레아: 공식미사 후.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피정중인 부제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1.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여성 꾸르실료 수강: 28일~31일 짧은 기도바랍니다.
3. 사회복지주일: 다음주 2차 헌금.
4.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오늘 모든 미사 중.
5. 울드레아: 31일(일) 저녁
6. 성서읽기: 시편91편~100편 7. 금주침소: 천주의모친Pr.
8. 금주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강수제
 봉헌-유순진, 유춘근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옥 ②오귀남
 봉헌-오철규, 하원봉씨 부부.

※ 이사오시거나 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1. 중고생 동계수련회: 25일(월)~27일(수) 2박3일. 장소-격포.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삶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2. 반모임: 27일(수)오전-남양활실, 오후-동신.
3. 본당 사목계획: 1. 신자찾기. 2. 반모임 활성화. 3. 제단체 활성화. 4. 본당의 경제적 자립.
금주전례: 최경순, 독서-봉헌: 송덕순, 송훈식.
차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구정삼, 이재호.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희
사목회장 이 동 섭

※ 연중 제3주일

※ 새해에 하느님의 은총이 각 가정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1. 알림: ①여성 제40차 꾸르실료수강-송영희(실비아) 정명순(루시아)자매님. 1월28일(목)-1월31일(일)(좋은 수강되시길 빕니다) ②93년도 교구장님 사목교서를 각 가정에서 읽어보시고 금년부터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③이(윤춘)율리바 수녀님 인사발령-1월27일(수), 어려운 본당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1. 꾸리아: 27일(수) 오전10시.
2. 꼬미시움: 30일(토) 오후3시.
3. 교리반 입교식: 31일(일)11시미사 후(성당에서) 예비자들을 인도합니다.
4. 92년도 교무금 완납을 부탁드리며 신년도교무금은 효자동 모든 세대가 한세대도 빠짐없이 작은 금액이라도 봉헌하시어 주님사업에 정성을 다 합시다.
5. 주의봉헌축일: 2월2일(화) 초봉헌, 추축성(판공성사1월중으로 보세요)
6. 미사안내: 금주-평화의 모후, 인자하신 모친
차주-모든성인의 모후, 셋별의 모후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성가대원, 전례 해설자를 모집합니다.
2. 예비자 인도에 적극 협조합니다.
3. 주의 봉헌 축일에 초 봉헌: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4.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라회.
5. 침소봉사: 1구역 1반, 2반.

1. 모임안내: 반회장, 반기도회 모임-29(금) 오전10시미사 후.
차주모임: 반사회, 요셉회, 사목회.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엄익도 ②정영호
 봉헌·안내-권병채 부부.
차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유병환 ②박근자.